

의 끊임 없는 後援으로 一〇〇號까지 채우고 보니 이분들에 對한 感謝한 마음을 禁할 수 없다. 지난 八年 數個月 동안 同好人들은 勿論 實로 數없이 많은 人士들로 부터 後援과 激勵과 鞭撻과 助言을 받았으니 이 조그마한 油印物을 여기까지 繼續하게 된 것도 그 原動力이 이리는데 銘心하고 앞으로 더욱 充實한 內容을 담아 斯界에 보탬이 될 것을 期約한다.

끝으로 이 때를 當하여 創刊同人으로 心血을 기울리시던 故澗松 全蓋 弼先生과 이 기쁨을 나누지 못함이 哀惜하다. 또한 始終一貫 本誌 및 資料集의 油印을 맡아 獻身的 努力을 하여 준 黃允默氏의 勞苦에 感謝를 올린다.

一九六八年 十一月 十五日

考古美術同人會

新羅聖住寺 大朗慧和尚

白月葆光塔의 調査

黃 壽 永

忠南 保寧郡 嶺山面 聖住里에 남은 聖住寺址는 신라 禪門 九山의 一遺墟로서 주목되어 왔다. 더욱이 이 곳에는 유명한 四山碑의 하나인 崔致遠撰 大朗慧和尚 白月葆光塔碑(國寶八號)가 전래하고 있으며 그 中心部에는 金堂址 앞에 五層石塔 一基(寶物十九號)와 그 後方에 규모가 거의 같은 三層石塔 三基가 並列하고 있어 그 중 兩基(中央과 西)는 또한 寶物(二十과 四七號)로 指定되었다. 이들 塔碑 등 指定物件 이외에도 石城으로 周回된 넓은 寺域에는 門址 廻廊址 등 적지 않은 建物の 殘礎가 추정되었으며 金堂址의 中央에서는 이 곳 本尊이었다고 전하는 鐵製坐像(今亡)의 石座가 또한 積石 밑에서 추정되었다. 그런데 이 聖住寺에 대한

여서는 東國輿地勝覽(卷二十 藍浦 佛宇條)에 「在聖住山北」이라고 하고 오직 崔致遠撰碑만을 전하고 있어 寺觀은 겨우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아마도 壬辰亂의 災禍를 입고 서는 다시 復舊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 今世紀에 들어와서도 上記한 地表의 遺物만이 주목되었을 뿐 이 寺址에 대한 學的 調査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다만 一九六二년에 이 곳으로부터 二基分の 逸名碑의 破材가 扶博으로 移管된 바 있었으며 그 사이 李殷昌씨의 勞苦로서 이 塔碑를 中心으로 하고 그 沿革과 伽藍址 등에 대한 報告가 있었다. (亞細亞研究)十卷 四號 一九六七·十二) 또 지난 五月 東國大史學科의 이 곳 踏查에서는 百濟瓦當片의 收拾이 있었고 八月에는 필자가 「崇巖山聖住寺事蹟」을 入手하므로써 모두 이 寺址에 대한 새로운 注目的 契機를 삼을 수가 있었다. 필자가 今年 이 寺址에 대하여 새로운 關心을 갖게 된 것은 특히 上記한 바 百濟瓦當의 出土와 事蹟記 寫本(本誌 九月號 資料篇)의 入手로 말미암은 것인데 이들이 動機가 되어서 東國大 博物館의 秋季 調査로서 이 寺址 全域에 대한 實測과 地表 調査가 十月 十四일부터 十八일까지 五日間 필자와 洪思俊 申榮勳 文明大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현재 寺址는 聖住炭鑛과 隣近하여 住民이 急増하였는데도 큰 破壞를 받지 않은 것만은 多幸이었으며 짧은 調査期間이나마 金堂址 石階 西便 一部の 試掘에서 百濟蓮花紋瓦當 등이 出土하여 史記나 遺事에 보이는 百濟 烏舍寺로서의 추정이 이루어졌고 鐵像蓮座의 發見 등 重要遺物이 들어났으나 그중에서도 이 곳에 소개하는 朗慧和尚부도인 白月葆光塔의 推定과 그 破材의 收拾은 가장 感銘깊고 또 즐거운 일이었다. 아직까지 이 浮圖에 대하여서는 신중한 調査가 없이 막연한 推정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二

從前에 이 朗慧碑에 대한 白月葆光塔의 推定은 上記한 바와 같은 金堂 後方에 東西로 並列하는 三層石塔 三基와의 關聯에서 그 中의 어느 것이 朗慧塔이라는 考察이었는데 그것은 伽藍配置法에서 혹은 朗慧碑 以外에 최근년에 새로 밝혀진 破碑 二基의 存在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필자 또한 일찍이 이 같은 見解를 따라서 이 聖住寺 三層石塔에 대한 간략한 解

說을 記錄(국보도록) 제5집 석탑편)한 바도 있었다. 그런데 이같은 見解를 처음 表明한 것은 日人 杉山信三氏로서 그의 著書인「朝鮮의 石塔」(一〇六頁과 一二八頁)에서 대략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多層塔 四基를 갖고 있는 聖住寺址에서는 五層石塔이 金堂址로 推定되는 앞에 세워져서 이 伽藍이 一塔씩이라 할 수 있는데 他三基는 이 金堂址의 背後에 나란히 中央에 一基와 그 左右에 一基씩 세워진 것이다.

伽藍의 塔으로서는 金堂 앞에 一基를 세우면 그 塔만으로서 必要하고 充分한 條件을 다하고 있으므로 他三基는 무엇 때문에 建立된 것인지 不明하다. 다만 無染(朗慧)의 白月葆光塔碑가 있고 浮圖라고 불만한 것이 따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중의 一基가 그 塔에 該當하고 他塔은 같은 意味를 갖고 他者의 것을 만들은 것이나 아닐까」 하고, 또는

「三層石塔의 形式이 佛塔 뿐만이 아니라 僧侶의 浮圖로서 세워지는 例도 있으므로 無染의 白月葆光塔碑의 塔에 해당되는 것이 이 中에 있는 것이나 아닐까」 라고 거듭 말하고 있다.

이같은 伽藍制度나 層塔式浮圖에 立脚한 論議에 대하여 李殷昌氏는 近年에 새로 밝혀진 二基의 破碑의 推定에서 또한 이같은 견해를 따르고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現立하는 三基의 三層石塔에 대한 石碑合計 三基의 存在를 關聯시켜서 비단 朗慧和尚의 浮圖뿐 아니라 그의 門人 또는 法孫의 逸名浮屠로 推定하였다. 李氏는 上記한「保寧 聖住寺址 調査報告」의 結言에서 다음과 같이 매듭짓고 있다.

「三層石塔 三基가 浮屠塔이라면 白月葆光塔碑와 逸名塔碑 등 三基의 塔碑와 關係되는 것이라 하겠는데 그 三層石塔 三基中 그 하나가 無染大師의 白月葆光塔에 該當되는 浮屠일 것이고 그 밖의 二基는 聖住山門 開祖 無染大師의 門人 또는 法孫의 逸名浮屠일 것이다.」

이와 같은 兩人的 論議는 그 根據삼은 바가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이 곳 寺址의 三層石塔 三基를 層塔式의 僧侶墓塔으로 추정하고 그 중의 어느 하나가 이 곳의 朗慧塔碑에 對應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點에서는 一致

되고 있다. 이것은 伽藍 全域에 대한 考察에서의 判定이 아니라 地表遺構만을 서로 關聯시킨 推定이다. 동시에 墓塔을 寺域中心區域內에 設置하지 않는 우리의 傳統的 方式에 대한 소홀함에서 由來하였던지 또는 이 곳合計 三碑에 대한 신중한 檢討가 없었던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특히 逸名塔碑 二基中의 一基에 대하여서는 寺址에 嚴存하고 있는 朗慧碑文 바로 그중에「故翰林郎 金立之撰聖住寺碑」라고 보이고 있음에서 손쉽게 짐작할 수도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朗慧碑에 近接하였던 破碑는 첫째 그보다 數十年 앞서서 聖住寺의 開闢을 따라 이곳에 建立된 事蹟碑임이 틀림없으며 따라서 僧侶의 墓碑가 아닐은 다시 말할 것도 없다.(金立之撰聖住寺碑에 대하여서는「文化財」第四輯에 따로 拙稿를 마련하였다.) 三基의 三層石塔과 三基의 石碑를 너무나 安易하게 結付시켰다고 하겠다.

三

十月十七日 聖住寺址의 조사는 이른 아침부터 金堂址中央에서 推定佛座의 돌덧받침을 除去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때 이 곳을 찾아온 聖住里 一三七번지의 李麟鳳씨와의 對話에서 필자는 李氏宅에 古代造形의 石材로써 만든「연자방아」가 있는데 그 盤石 周緣에는 아직 도 옛 그 대로의 調紋이 남아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하여 이곳 調査의 便宜를 보아준 金簡煥氏와 洪思俊氏를 불러서 一行 四人은 곧 寺址西方(國民學校 校西 浮圖谷 於口)으로 李氏宅을 찾았다. 필자는 十月十四日 이곳 現場에 도착하는 즉시로 金簡煥氏 또는 最古耆者인 李秉鎬氏(七十四歲)에게 寺址 隣近에 浮屠의 有無를 물었다. 그들은 寺西方에「부도골」이라는 傳稱이 있기는 하되 그곳서 부도를 본 일은 없다는 一致된 對答이 있었다. 이같은 傳稱名에서 용기를 얻은 필자는 그것이 日帝初期에 橫行하던 浮圖搬出의 結果가 아님을 먼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他地方으로의 搬出이 아니라면 그곳 現場에서의 破壞로 추측할 수가 있었다. 이 곳 寺址西方에 浮圖가 原在하였던 사실은 本文初頭에서 言及한 事蹟記를 통하여 짐작할 수도 있었다. 그「事蹟」에는 분명히 朗慧塔의 存在와 그 場所를 다음과 같이 記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大朗慧和尚白月光塔
安于西麓「西麓」이正
確하게 우리가 이날
찾아간 浮圖谷임은
다시 말할 것도 없
다. 그리하여 李氏
宅庭園一隅에 놓여
있는 八角石板의 各
面마다 眼象이 새겨
져 있음을 보고 그
것이 八角浮屠의 一
枚 地臺石의 變形임
을 알 수 있었으며
그와 一具를 이루는
身石 또한 原形을 전
혀 남기지 는 않았으
나 원래 八角의 竿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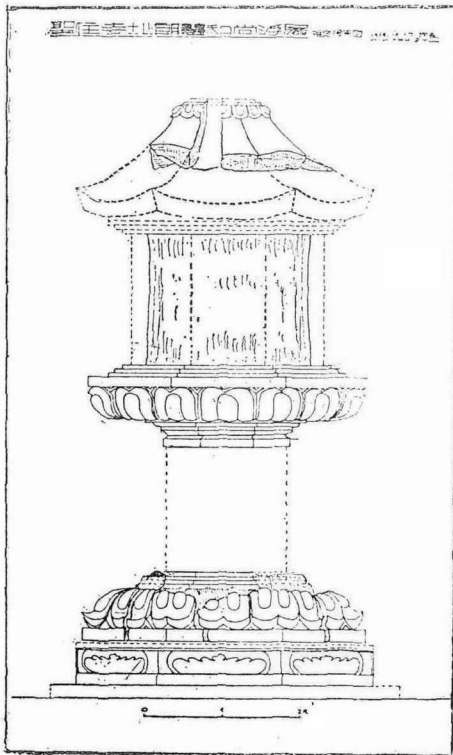
또는 塔身으로 짐작할 수가 있었다. 이곳에서 다시 李氏에게 들은 바
는 그가 現家屋을 買入할 때 이 연자방아도 함께 샀다는 것이며 傳言에
의하면 故오기 초씨가 이 石材를 山中에서 옮겨서 방아를 만들었는데 그
것도 이미 七、八十年以前의 일이라고 하였다. 浮圖가 破壞된 사실은 이
것만으로서도 짐작할 수 있었으며 部落古老가 아무도 그것을 親見하고
있지 않은 까닭도 알 수가 있었다. 그리하여 一行은 다시 山谷을 향하여
李씨가 가르키는 破材의 散亂場所를 찾아 올라 갔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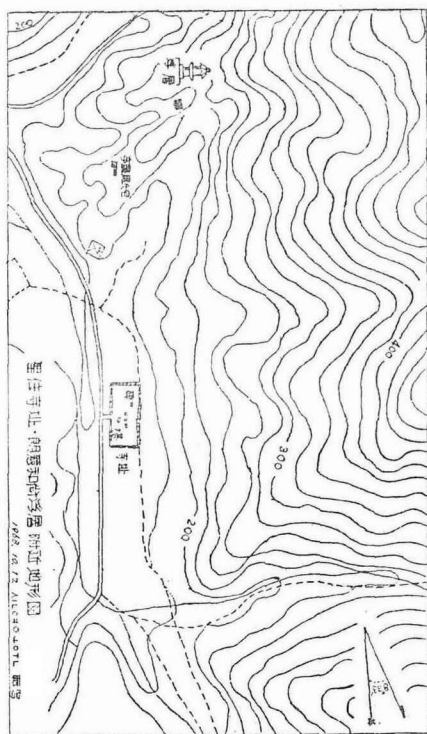
이 곳 數三의 曠夫住宅을 지나 山골에 들어서서 그리 높지 않은 西側
傾斜面 數處에서 林間을 더듬어 浮圖片들을 곧 찾을 수가 있었다.

藍浦烏石의 產地인 이 地帶이므로 他方에서 운반된 白色異質의 花崗石
破材는 곧 識別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을 더듬어 올라선 一支脈

의 中腹 밑 臺地위에서 이 浮圖의 原位置를 찾을 수가 있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無主의 古塚 一基가 대신 자리 잡고 있었으니 不幸한 豫感이
適中됨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廢寺後 浮屠가 찾아한 그 자리를 탐낸
者가 있어 浮屠를 除去하고 (約百年前後) 設墓하였던 것이며 그後 浮圖
材는 다시 石工의 注目하는 바 되어서 石臼등으로 轉用破損되었던 것이
다.

이같은 事例는 얼마든지 들 수 있는데 알찌기 楊州 檜岩寺 三和尚浮屠
의 破壞는 近世의 유명한 사실이며 慶北 軍威麟角寺 一然禪師浮圖의 倒
壞는 일찌기 李弘植氏와 필자가 調査한 바도 있었다. 破材가 東側斜面
에 散亂된 것은 그 方向으로 倒壞된 各部材를 그 자리에 놓고 다시 破





損하였기 때문이다. 이八角浮圖가 자리잡았던 넓이 약六十坪의 이場所는海拔約百m의高地로서 聖住山西嶺에서 東南으로 뻗어내린一支脈인데 四神相應의 景勝의 땅임을 곧 알 수도 있었다.

이八角浮圖片의 發見은 이번의 豫備調査에서의 하나의 成果이었다. 그리하여 翌十八日 午前에 洪思俊氏 文明大氏와 필자의 三人은 人夫三名을 同伴하고 다시 現場에 이르러 이들 破材를 撮影하고 다시 溪谷 밑으로 巡行하였는데 이때 다시 八角蓮花紋臺石을 最上方에서 찾을 수가 있었다. 이것은 土中에서 破壞를 冒免한 唯一의 安品임에 모두 歡聲을 높여 올리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이들 破片을 現場에 놓고 復元한 바 各部材마다 原形과 크기를 알 수가 있었다. 이날 午後에 다시 洪思俊氏와 申榮勳氏에 의하여 實測되었는 바 그 大要는 대략 다음과 같다.

四

이浮圖는 新羅下代 禪宗의 流行을 따라서 祖師浮圖로서 建立된 八角圓堂型의 하나로 볼 수가 있다. 聖住寺는 신라 文聖王 때(八五〇年代)에 開創되었다. 그리고 創建祖師인 朗慧和尚은 그 후約四十年이 지나 眞愍女王二年(八八八年 文德元年)에 入寂하였으며 그의 浮圖인 白月葆光塔

은 다시 二年이 지난 眞聖女王 四年(八九〇)에 建立되었던 사실이 朗慧碑文에서 다음과 같이 짐작할 수가 있다.

越二年 攻石封層家

그리하여 朗慧浮圖인 白月葆光塔의 造成과 年代를 알 수 있는 바이 곳 寺西의 浮屠谷에서 수습된 破材는 그 形態와 彫刻에서 신라 下代인 九世紀末에 該當되며 따라서 上引한 碑文이나 「事蹟」의 記錄과 더불어 聖住寺 初代祖師인 朗慧浮圖로 추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當時에 있어서 신라 禪門九山인 南原 實相寺의 洪陟浮圖、谷城 泰安寺의 惠哲浮屠、長興 寶林寺의 普照浮圖、昌原 鳳林寺의 眞鏡浮圖、開慶 鳳岩寺의 智證浮圖 등 九山創建祖師의 그것이 하나의 例外없이 모두 八角圓堂型을 따르고 있는 時代의 流行과 樣式 또한 이 곳에서 參考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에 이 浮圖材를 下部로부터 記錄하면 다음과 같다(附圖參照).

- (1) 地臺石……八角으로서 徑四尺一寸一邊長一尺五寸五分 厚四寸四分의 一枚石인데 다시 이 밑의 地臺石은 아니 보인다. 各面의 眼象은 金堂佛座의 것과 小異하나 同式의 것으로 보인다.
- (2) 蓮花臺石(上)……모두 十二枚의 破片으로 分斷되었는데 上記(1)위에 놓이는 一枚의 下臺石으로 추정된다. 蓮花紋은 複蓮十六瓣으로서 金堂佛座의 蓮花紋과 同式이며 彫法이 또한 類似하다. 上面에는 數段받침위에 竿石을 받기위한 八角臺가 마련되었다. 八角各隅마다 隅花가 마련되었는데 現在 오직 一角만이 거의 完形을 남기고 있다. 復元 直徑三尺九寸二分 一邊一尺五寸一分 高八寸二分
- (3) 蓮花臺石(上)……八角一石의 完品으로서 顛倒埋沒되어 있었다. 十六瓣仰蓮의 單瓣文인데 下面에는 竿石上面위에 놓였던 角과 四分圓弧의 물딩이 있으며 上面에는 또한 塔身을 받기 위한 三段의 받침이 마련되었다. 直徑三尺七寸二分 一邊一尺四寸八分 高一尺五寸
- (4) 屋蓋石……三片의 八角形頂上部로서 簷端이 모두 缺失되었다. 頂部를 들어서 單瓣伏蓮이 새겨진 것은 通例를 따르는 手法이다. 現 直徑二尺七寸 現高九寸二分
- (5) 塔身……現在 연자방아의 身部一石을 이루고 圓形인데 八角의 原

形을 전혀 남기고 있지는 않다. 現高一尺六寸四分 直徑二尺七分 기 타相輪이나 笄石은 찾을 수가 없었다.

(一九六八年 八月 三十日)

〔後記〕浮圖破材는 李氏家の 연자방아 二石과 더불어 우선 이 곳 聖 住國民學校 花壇에 運搬 保存키로 하였다.

法住寺 捌相殿의 舍利裝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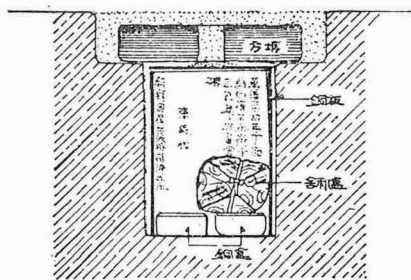
崔 淳 雨

文化財管理局이 시행하는 法住寺 捌相殿의 解體重修工事に 따라 一九六八年 九月 二十一日 塔心礎石위에 세워졌던 巨大한 心柱를 내리는 作業이 이루어져서 筆者는 黃壽永 秦弘燮 敎授等과 더불어 이에 立會해서 이 塔의 舍利裝置調査를 擔當한 바 있다. 이미 豫想되었던대로 이 心柱를 받치고 있던 古制의 塔心礎石 上面에는 方形의 舍利孔이 있어서 그 안에 安全하게 藏置되었던 舍利壯嚴一式을 發見하였으며 이 遺物은 九月 二十二日 法住寺別室에서 寺刹側 立會下에 綿密한 調査가 이루어졌다. 韓國에 現存하는 唯一한 木造塔婆인 이 捌相殿建物은 비록 壬辰倭亂後에 重建된 것이기는 하지만 불타버린 原基壇 위에 다시 세운 것으로 그 舍利裝置는 現存한 木造塔婆속에 남겨진 完全한 舍利裝置의 唯一例로서 더러므로 그 格式과 內容이 注意된다 할 수 있다. 과거 韓國木造塔婆의 舍利裝置에 대한 調査例로는 一九六六年 十月 文化財盜掘常習犯 一黨이 檢舉됨에 따라 그 盜掘被害가 밝혀진 慶州 皇龍寺 木造塔址 舍利裝置의 殘存遺物을 現地調査①한 報告 및 當局에 押收된 그 一部遺物이 있어서 이번 捌相殿舍利裝置의 調査와 더불어 古格을 內包한 韓國木造塔婆의 舍利裝置樣式考察에 좋은 知見이 되어 주었다.

1)

舍利孔(左側圖面)은 塔心礎石 上面中央에 方形二段構造로 되어 있어 서 그 上段部는 舍利裝置를 保護하기 爲한 蓋石이 덮이는 언덕 구실을 하고 그 下段部에 舍利를 安置하도록 設計되어 있다. 이러한 二段構造의 木造塔婆의 舍利孔은 前記한 皇龍寺 木造塔址 心礎舍利孔의 古制가 反映된 것으로 보여진다. 즉 舍利孔의 規格은 皇龍寺것이 上段 三九cm 方格, 깊이 八cm, 下段이 三〇cm 方格, 깊이 二七cm인데 비해 捌相殿것 이 上段 二九·七cm 方格, 높이 六·五cm, 下段 一七·八cm x 一七·二cm 方格, 깊이 一一·二·六六cm로서 若干 작지만 格式은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처음 心柱를 들어낸 후의 舍利孔은 香木 또는 心柱 밑에서 떨어져진 것으로 보여지는 腐蝕物로 덮혀 있었고 杏實로 보여지는 열매들이 그 위에 드문드문 섞여 있었는데 이 杏實에는 個個의 側面에 半月形으로 깎아 낸 구멍이 하나씩 있음이 注意되었다. 舍利孔上段에는 두께 四·六cm 一邊 二·三·三cm 크기의 方形塼이 덮혀있어서 舍利孔 上段보다 작은 이 方形塼둘레의 餘地를 石灰로 充填했으며 이 方形塼의 中央에 直徑 六cm 內외의 圓形 구멍이 있어서 原來 여기에 金屬製의 고리를 달았던 것으로 짐작되나 고리는 없고 石灰로 메꾸어져 있었다. 皇龍寺 木造塔址 舍利孔 蓋의 경우는 方形花崗石의 中央에 구멍을 뚫고 굵은 靑銅고리를 달았었음 에 비추어 이 구멍의 用途는 능히 짐작이 된다고 할 것이다.

舍利孔蓋의 구실을 하고 있는 이 方形塼을 들어내면 舍利孔의 四壁과 天蓋를 이루는 五張의 銅板이 둘러져 있으며 이 天蓋銅板은 方形塼의 底面과 石灰로 溶着되어 있는 것



法住寺 捌相殿 心礎石舍利